

# 2022회계연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 I. 추경예산 개요

### 1. 세입예산

- 평생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238억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음.

####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기정 당초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23,809	23,809	23,809	0	0	0	0
세외수입	11,922	11,922	11,922	0	0	0	0
경상적	3,284	3,284	3,284	0	0	0	0
임시적	8,637	8,637	8,637	0	0	0	0
보조금	11,810	11,810	11,810	0	0	0	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78	78	78	0	0	0	0

## 2. 세출예산

- 평생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4조 3,821억 2천만원으로 기정 예산 4조 3,787억 9천만원 대비 0.08%(33억 2천 9백만원) 증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4,378,787	4,378,787	4,382,115	3,329	3,329	0.08%	0.08%	
행정 관 리	소 계	4,378,787	4,378,787	4,382,115	3,329	3,329	0.08%	0.08%
	행정운영경비	351	351	351	0	0	0.00%	0.00%
	재무활동	0	0	86	86	86	순증	순증
	사업비	4,378,436	4,378,436	4,381,679	3,242	3,242	0.07%	0.07%
교 부 금	0	0	0	0	0	-	-	

〈 2022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2022 예산		제1회 추경 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0	0	3,329	3,329	3,329	순증	순증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	0	0	3,242	3,242	3,242	순증	순증
국고보조금반환(일반회계)	0	0	52	52	52	순증	순증
국고보조금반환(균형발전특별회계)	0	0	35	35	35	순증	순증

## Ⅱ . 검토의견

### 1. 세출예산

- 평생교육국은 3개 사업에서 33억 2천 9백만원을 증액한 4조 3,821억 2천만원으로, 기정 예산 4조 3,787억 9천만원 대비 0.08%(33억 2천 9백만원) 증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2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2022 예산		제1회 추경 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0	0	3,329	3,329	3,329	순증	순증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	0	0	3,242	3,242	3,242	순증	순증
국고보조금반환(일반회계)	0	0	52	52	52	순증	순증
국고보조금반환(균형발전특별회계)	0	0	35	35	35	순증	순증

### 가. 서울형 교육 플랫폼 구축

- 본 사업은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신규 사업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2022년 예산안에서 편성되었으나, 의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이나, 32억 4천 2백만원 규모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 〈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 〉

(단위:천원)

구 분	2022년 기정예산	2022년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률
계	-	3,242,464	3,242,464	순증
공공운영비	-	283,000	283,000	순증
전산개발비	-	2,959,464	2,959,464	순증

- 2022년 당초 제출한 예산안과 비교해 보면 감액된 금액은 ‘사무관리비’ 2억 5천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천만원은 편성하지 않고, ‘공공운영비’ 2억 8천 3백만원과 ‘전산개발비’ 29억 5천 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사무관리비’는 ‘전문가 자문회의 수당’ 2천만원, ‘평가수당’ 1천만원, ‘플랫폼 홍보비’ 2억 2천만원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제외되었음.

#### 〈 2022년 당초 제출되었다가 삭감된 예산안과 추경예산안 비교 〉

(단위:천원)

	2022예산안	2022년 제1회추경안	증감액	증감률
계	3,502,464	3,242,464	△ 260,000	△ 8.0%
사무관리비	250,000	-	△ 250,000	△ 100.0%
공공운영비	283,000	283,000	-	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	△ 10,000	△ 100.0%
전산개발비	2,959,464	2,959,464	-	0.0%

- 평생교육국은 본 사업을 동영상 강의 제공에서 벗어난 AI기술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학습서비스\*(이하 에듀테크), 다양한 학습자원(콘텐츠, 학습도구 등)이 연계되는 공유 플랫폼 구축을 통해 현재 서비스 대상인 청소년 뿐만 아니라 청년, 시민\*에게 생애주기에 맞게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 학습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서울형 교육 플랫폼(가칭 '서울런') 시스템 구축 계획(평생교육과-4747, 2021.5.17.)

※ 에듀테크는 다양한 기술이 존재하나, 그 중 본 검토보고에서는 평생교육국이 활용하고자 하는 “AI기술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학습서비스”를 에듀테크로 통칭함.

※ 에듀테크 EduTech : 학습자의 교육효과를 높이는 기술 또는 산업을 말하며,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을 합성해 ‘에듀테크’(EduTech)로 부르고 있음. 일부는 공간의 제약을 가진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로도 보고 있음.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러닝(e-learning)부터 증강현실(AR-Augmented Reality) 가상현실(VR-Virtual Reality), 혼합현실(MR-Mixed Reality), O2O(online to offline), 개인 맞춤화 소셜서비스, 개인별 맞춤 콘텐츠 제공 등 다양한 IT기술이 교육에 적용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신기술이 유입되어 에듀테크의 개념은 확장되고 있음.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집중지원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다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콘텐츠 구축으로 다양성을 추구하며, 에듀테크 접목을 통해 혁신성 등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교육플랫폼 ‘가칭 Seoul Learn’ 구축(안) (평생교육국 추경 관련 제출자료)

- 본 사업은 현재 서울시에 구축된 교육플랫폼(평생학습포털)에서는 에듀테크를 적용할 수 없어,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여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첫째, 본 사업은 2021년 추경예산안, 2022년 본 예산안 등 2번 제출되었으나, 모두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는 예산의 규모를 축소하여 제출하고 있음.
  - 계획의 변경 또는 재수립, 필요성 확대 및 시급성 증대, 여건의 변화가 없음에도, 전액 삭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안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의회가 이전의 의결을 반복하도록 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권을 경시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예산 삭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제출 전 철저한 시장조사, 상황변화에 따른 사업 재분석, 사업계획의 개선 등을 통해 재검토의 여지가 발생할 때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는 등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평생교육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둘째, 통상 추가경정예산은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민생경제 회복, 방역체계 강화 등을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밝히고 있음.
  - 이에, 본 사업이 즉시 시행해야 할 시급성 또는 당위성이 있는지 여부와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방향성과 부합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셋째, 본 교육플랫폼 구축사업은 AI를 통해 사용자별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 현재, 사업대상은 서울권 사용자인 청소년으로, 제공되는 콘텐츠는 ‘사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규교육 관련 콘텐츠’로 한정되어 있고, 본 사업계획의 최종단계에서 사업대상은 모든 시민이며, 제공하는 콘텐츠는 평생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 현재의 정규교육과정 콘텐츠 탑재를 위한 플랫폼으로 한정하여 본 사업을 심사할 것인지, 서울권 추진 계획에 따라 계획상 최종단계의 대상인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으로 심사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넷째,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을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최종단계에서는 평생교육의 범주 안에 있을 것으로 보이나,
  - 현 시점에서 본 사업대상은 청소년 중 취약계층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제공되는 콘텐츠도 평생교육의 범위 밖에 있는 정규교육과정이며,
  - 초기 단계부터 최종단계까지 포함될 수 밖에 없는 ‘정규교육과정 콘텐츠’를 탑재한 플랫폼을 평생교육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평생교육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평생교육국의 설명과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공교육의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본 사업을 평생교육으로 볼 수 있다고 하나, 「평생교육법」의 ‘학력보완교육’은 검정고시강좌, 학력인증강좌, 독학사강좌, 학점은행강좌 등을 뜻하고 있어, 「평생교육법」의 학력보완교육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짐.
- ‘정규교육과정 운영’이 아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보충교육’이라는 측면에서 평생교육의 범위 내의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
- 본 사업은 입시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교육분야에서 일류강사의 강의를 통해 ‘교육사다리’를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평생교육국은 서울런 이용자들의 대학합격 수기 등을 기반으로 보도자료<sup>1)</sup>를 배포한바 있음.
- 평생교육국의 보도자료는 본 플랫폼에 탑재될 서울런이 교육의 보충적 성격을 강조하기 보다 ‘입시전문가의 입시분석’, ‘1:1 정시 전략 컨설팅’, ‘논술·면접’, ‘진로·진학 설명회’ 등이 입시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바, 본 플랫폼 구축은 단순한 ‘보충교육’ 또는 ‘교육사다리’가 아닌 ‘입시 사다리’의 플랫폼으로 변질될 우려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정규교육을 보충한다는 점에서 공교육과의 상호작용 또는 연계 등을 위한 계획 등은 교육플랫폼 구축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취약계층에 한정하여 제공한다는 점 외에 본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1) 평생교육국 2022.2.24. 보도자료, “서울런’으로 대학 합격 했어요”...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희망사다리 놓았다”



- 다섯째, 본 플랫폼의 사업대상이 모든 시민으로 확대될 경우 콘텐츠의 질적 수준 및 다양성이 본 플랫폼 이용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며, 본 플랫폼에 사용될 AI는 본 플랫폼에 탑재된 콘텐츠 내에서 최적·맞춤 콘텐츠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 콘텐츠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콘텐츠 확보 계획이 필요하나, 이러한 계획은 수립 전으로, 본 플랫폼 구축 후 콘텐츠 확보방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여섯째, 기존에 운영 중인 평생학습포털과 본 플랫폼은 ‘평생학습 콘텐츠 제공’이라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며, ‘시민이 콘텐츠를 직접 찾는 방식’과 ‘AI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별 맞춤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방식’ 등의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임.
  - 평생교육국은 두 개의 시스템은 특성이 상이하어 각각 활용할 예정으로 밝히고 있으나, 지속적인 콘텐츠의 보충 및 보강, 다양한 콘텐츠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장래에는 두 시스템 간 콘텐츠의 연동이 필요하게 되고, 결국 두 시스템의 통합을 논하게 될 것인바, 두 시스템의 활용, 연동, 통합 등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일곱째, 정규교육과 평생교육은 모두 교육부 소관으로, 교육부는 정규교육을 위해 ‘K-에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평생교육은 ‘늘배움(국가평생 학습포털)’으로 구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는 정규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합제공 및 운영·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육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교육부는 학교(또는 학교교육), 평생교육을 '다른 교육'으로 구별하고,  
서울시는 정규교육과 평생교육을 '다르나, 유사한 교육'으로 인식하는 것에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교육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과 방법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며,

학교(또는 학교교육)는 계획된 내용과 과정, 동일 수준의 과정을 연결하여 교과를 구  
성하는 국가 교육시스템이고,

평생교육은 평생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lifelong education)으로 정의되고 있음.

- 모든 교육(정규교육, 평생교육 등)의 주체는 교육당국(교육부와 교육청 등)이며,  
서울시는 교육의 지원·보조의 역할로, 국가 교육시스템과 분리하여, 서울시  
교육 및 교육지원이 독립적 또는 단독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바,  
서울시 교육플랫폼이 국가 교육시스템의 지원 또는 보조적 역할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평생교육국이 교육플랫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교육격차  
해소의 주체가 아닌 교육의 지원·보조자의 역할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점점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나. 국고보조금반환(일반회계)

- 본 사업은 2020년도에 추진되었던 청소년안전망 구축지원 등 총 5개의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려는 것으로 5천 2백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 국고보조금 반환(일반회계) 예산편성안 〉

(단위:천원)

	2022년 당초예산	2022년 추경예산안	증감
계	-	51,708	51,708
국고보조금반환금	-	51,708	51,708

- 청소년안전망구축지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운영,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급식) 운영,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운영 등 총 5개 사업임.
- 위 사업 중 3개 사업(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급식) 운영)은 2020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국비의 확정내시(증액)에 따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변경된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였음.

### 〈 국고보조금 반환(일반회계)의 세부내역 〉

(단위:천원)

	국비교부액	국비집행액	국비잔액	잔액이자	반환액
청소년안전망구축지원	195,600	193,639	1,961	132	2,093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1,391,553	1,371,439	20,114	1,252	21,367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운영	25,000	21,054	3,946	18	3,964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급식) 운영	3,112	-	3,112	-	3,112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운영	170,463	149,462	21,001	173	21,174

※ 각 사업별 사업 내용

- 청소년안전망구축지원 : 지역 내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상담전문가가 위기청소년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심리적, 정서적 지지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
-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운영 : 자치구에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을 구성하여 위기청소년 통합 지원을 위한 주요 기능 수행(3개 자치구 : 노원구, 송파구, 강서구)
-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급식) 운영 : 학교 밖 청소년(꿈드림 프로그램 참여) 급식 지원
-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운영 :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 지원 등을 지원.

○ 국고보조금 반환시기에 대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기획재정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반납절차 안내」(행정안전부)는 반납요청이 있는 때에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통상 사업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해에 결산을 하고, 결산이 있는 다음연도에 반환할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국고보조금 반납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평생교육국은 국고보조금 반환 예산을 미편성하여 2021년에 반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 있음.
- 청소년안전망 관련 3개 사업은 2022년 예산안 제출 시기(11월) 이후에 여성가족부의 반환요청이 있어, 2022년 예산안에 편성을 하지 못해 가장 빠른 시기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관련 2개 사업은 2021년 8월에 여성가족부의 반환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반환예산을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는데, 국고보조금 관리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청소년안전망구축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요청일 : 2021년 12월 07일
-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요청일 : 2021년 12월 07일
-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운영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요청일 : 2021년 12월 01일
-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급식)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요청일 : 2021년 08월 13일
-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운영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요청일 : 2021년 08월 13일

#### 다. 국고보조금반환(균형발전특별회계)

- 본 국고보조금 반환은 2019년 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국비를 지원 받고 미집행한 금액으로, 여성가족부로 반환하기 위하여 3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 국고보조금반환(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편성 현황 〉

(단위:천원)

구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계	-	34,500	34,500
국고보조금반환금	-	34,500	34,500

- 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준공 후 5년이 지난 청소년시설이 대상이며, 청소년시설의 설비, 시설 보수 및 보강을 위한 사업임.
- 2019년 평생교육국은 46억 2천 8백만원(국비 13억 8천만원, 시비 32억 4천 8백만원)의 예산으로 총 24개의 청소년시설의 기능 보강을 시행했으며, 국고보조금 중 집행잔액이 7천 5백만원이 발생했음.
- 집행잔액 7천 5백만원 중 긴급공사비(3천 4백만원)은 제외하고 반환하였고, 금번 여성가족부의 반납요청에 따라 미사용하였던 긴급공사비 3천 4백만원을 반환하고자 예산에 편성한 것임.
- 다만, 긴급공사비 반환요청은 2021년 9월 10일에 있었고, 평생교육국은 2021년에 반환했어야 하나, 2021년 반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지 못하고, 금번 추경에 반환예산을 편성했는데, 국고보조금 반환 사무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 법 조 사 관	정 찬 일